

"이개호 의원님께서서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과거 발언과 행적은 동물보호 주무부처 수장의
그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며,
일반 국민의 상식과도 맞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보호 정책을 수립·시행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동물보호 행정을 책임지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원님께서 스스로 사퇴의 용단을 내리시든지,
그게 아니라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동물의 생명 상품화 대신 행복한 반려생활을 뒷받침 하고,

△동물을 학대와 방치, 실험적 이용과 산업화로부터 보호하며,

△축산 프레임에 가리워져 있는 농장동물의 복지를 현저히 높여
국가의 전반적 동물복지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생명존중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합니다."